

1006 개의 동전

-어느 사회복지사의 글-

예상은하고 갔지만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흠칫 놀라고 말았다. 얼굴 한쪽은 화상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 코가 있던 자리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순간 할 말을 잃고 있다가 내가 온 이유를 생각해내곤 마음을 가다듬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해서요, 어서 들어오세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서자 밥상 하나와 장롱 뿐인 방에서 흑하고 이상한 냄새가 끼쳐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어린 딸에게 부엌에 있는 음료수를 내어 오라고 시킨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얼굴은 왜 다치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그녀의 과거가 줄줄이 읊어 나오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집에 불이나 다른 식구는 죽고 아버지와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때생긴 화상으로 온 몸이 흉하게 일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허구헌 날 술만 드셨고 절 때렸어요. 아버지 얼굴도 거의 저와 같이 흉터 투성이였죠. 도저히 살수 없어서 집을 뛰 나왔어요." 그러나 막상 집을 나온 아주머니는 부랑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몇 년 간을 지낼 수 있었다. "남편을 거기서 만났어요. 이 몸으로 어떻게 결혼을 했냐고요? 남편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지요" 그와 함께 살 때 지금의 딸도 낳았고, 그때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행복도 정말 잠시, 남편을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후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철역에서 구걸하는 일 뿐.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녀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느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 무료로 성형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 번의 수술로도 그녀의 얼굴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나요. 원래 이런 얼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수술만 하면 얼굴이 좋아져 웬만한 일자리는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는 달리 몸과 마음에 상처만 입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부엌을 둘러보니 라면 하나, 쌀 한 톨 있지 않았다. 상담을 마치고, "쌀은 바로 올라올 거고요 보조급도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며 막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장롱 깊숙이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 손에 주는 게 아닌가? "이게 모예요?" 검은 비닐 봉지에 들어서 짹그랑 짹그랑 소리가 나는 것이 무슨 쇠덩이 같기도 했다. 봉지를 풀어보니 그 속 안에는 100원 짜리 동전이 하나 가득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어리둥절해 있는 나에게 그녀는 잠시 뜰을 들이다가 말하는 것이었다. "혼자 약속한 게 있어서요. 구걸하면서 1000원 짜리가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고, 500원 짜리가 들어오면 자꾸 시력을 잃어가는 딸아이 수술비로 저축하고. 그리고 100원 짜리가 들어오면 나보다 더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해 드리기로요. 좋은데 써 주세요." 내가 꼭 가지고 가야 마음이 편하다는 그녀의 말을 뒤로하고 집에 들어와서 세어보니 모두 1006개의 동전이 들어있었다. 그 돈을 세는 동안 내 열 손가락은 모두 더러워졌지만 감히 그 거룩한 더러움을 씻어 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한밤을 뜬눈으로 지새고 말았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교인"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점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3권 1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5월 5일
☎269-8677/021-292-1639, ☒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어린이 주일에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골목길에서 코흘리개 아이들 네 명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사랑을 다해서 매 주일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 심겨진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삼십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생일을 맞아 네 통의 축하 전보를 받았습니다. 삼십 수년 전의 코흘리개 어린 아이들이 모두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선생님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축하 전보를 보내온 것입니다. 첫번째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사람은 미국 연방 은행의 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번째 사람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번째 사람은 바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클라크 후버(Herbert Clark Hoover, 1874~1964)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초 전쟁으로 지친 세계는 나폴레옹의 진군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기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과 워털루 전투 사이, 그러니까 1809년에 영국 리버풀 지역에서는 대영제국의 수상이 된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태어났으며 서머스비 지역에서는 영국의 계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스경이 태어났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서는 올리버 웬델 홈스가 태어났고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작곡가 펠릭 멘델스존이, 미국 캔터키주 허켄빌에서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태어났습니다.

모두 전쟁에 마음을 빼앗겨 어린 생명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생명들이었습니다. 암흑의 세기에 하나님은 어린 아기 예수를 통해 소망을 주셨습니다. ' 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야말로 부모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4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71(어린이주일)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53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지찬영 집사
세례식 Baptism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8:1-4	
주일학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어린이아이 같아야"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98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도 Offera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5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time봉사	안내:김교섭
5/ 6	지찬영	최재학	김종건.지찬영	박영태.정의령	최윤호.송정섭
13	최재학	최윤호	박영태.정의령	변지웅.신선숙	최재학.노은숙
20	한 건	지찬영	박영태.박정자	윤한나.손정훈	김종건.지찬영
27	한은영	조순정	변지웅.신선숙	이경석.한은영	박영태.정의령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에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	---------------	--------------

교 회 소 식

-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이사야(1): 1명. 예레미야(2):1명. 예레미야애가,에스겔: 1명
- 성숙자반을 수료하였습니다.
*김교섭,정희자.김영길,신경화.지찬영.최재학,노은숙
- 세례,입교반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입교:김경민 *세례:손정은,이정수
- 다음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 다음주일까지 Hall을 사용할 수 없어 예배 후 Tea Time을 갖지않습니다
- 교회청소: 주일 준비를 위한 교회내부청소를 본교회와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함께 담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연합심령부흥회: 5월14일(월)-16일(수)
*강사:음동성 목사(서울 동교동 교회) *시간: 저녁 7:30
*장소:14일(월) 갈보리교회 / 15일(화)임마누엘교회 / 16일(수) 주님의교회
- 5월의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6일	어린이주일 세례식	세례문답(5일 저녁 6시)
13일	어버이주일	
27일	이삭줍기봉헌	



이미 차있는 그릇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릇이 아닙니다